



# 해운·물류선진국 진입위해 전문인력 양성필요

## 고등학교-전문교육 연계 물류교육프로그램



우리나라가 물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부터 전문 교육까지 일괄적으로 연계된 물류교육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송신문사는 12월15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 신평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등 민관학 전문가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물류 전문인재 육성전략'이라는 주제의 '창사 25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동덕여대 오세영 교수가 사회를 맡고, 재능대학 박창호 교수가 발제하여 창명해운 이경재 사장,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 해양부 신연철 동북아기획단 과장, 동서대 한철환 교수, 김경근 해양대 교수, 인하대 장영태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재능대학 박창호 교수

해운항만물류 인력 양성기관인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학

통폐합 추진에 있어 해운항만 물류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학 설립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남 여수대학이 전남대학교와 통합되며 그 명칭이 전남대학교로 바뀐 것처럼 한국해양대학교도 국립대학 통폐합 정책의 일환으로 부산대학교 또는 부경대학교와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어 그 명칭이 없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목포해양대학교도 전라남도권 6개 국립대학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어 한국해양대학교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목포해양대학의 경우 목포가 해운항만 인재 양성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는 중론이 형성되면 목포해양대학교를 광양 또는 수도권(인천/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해운항만의 기초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해사고등학교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부산시와 인천시의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해사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특목고 수준으로 활성화하여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수산연수원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정규 전문대학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해기사를 비롯한 해사인력의 신규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산학 연계프로그램에 의한 기초 및 고급인력의 직무향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연수원은 인하전문대학과 공동으로 항만물류 전문학사과정을 개설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양질의 항만물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 산하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해양수산부 신연철 과장

글로벌화 하는 물류기업의 전문인력 증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장단기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으로 한국해양대와 중앙대 주관으로 2년간 교육이수 후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장기과정과 한국해양대 컨소시엄과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업계 재직자들을 중심으로 약 3-4주간의 기간으로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 중앙대와 중국산동대간 협약을 체결하여 중국 산동대 학부생 중 50여명을 선발하여 3학년까지 중국 산동대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한 뒤 우리나라의 중앙대 상경학부 국제물류전공과정의 3학년생으로 편입토록 하고, 졸업 후 중앙대의 학위를 부여하여 향후 한중 양국간의 해운항만 물류관련 인적 협력 기반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 인하대 장영태 교수

물류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네덜란드의 상황과 비슷하다.

미국의 MIT가 공과대학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알아주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물류분야에 최고의 대학을 육성해야한다.

인하대의 경우 홍승용 총장이 물류교육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년간 재단장학금지원과 1년간 해외연수, 졸업생 100% 한진그룹 취업 등의

혜택으로 약 30대 1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7만명 정도의 물류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의 경우 필요인력이 3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추정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 중국은 지난 2000년에 1개 학교만이 물류교육을 시행했으나 2006년 현재에는 165개 학교에서 물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물류전문인재 육성은 SCM분야에서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 산업 등과 연계된 육성노력이 필요하다.

### ▶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

물류인력 육성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류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부족하다. 물류인력 양성은 해양수산부가 2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한 것이 전부다.

국내 해운업의 위상은 급격히 높아졌다. 2015년 해운 5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운물류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특히 해운물류 연구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업계 차원에서 R&D 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 해기인력의 공급 안정화와 국제경쟁력을 도모해야 하며, 부원선원과 해기사로 계속 승전할 수 있도록 해운인력의 양성, 고용 및 직업전환에 관한 단계적인 지원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 한국해양대 김경근 교수

우리나라의 6000억불 수출은 한국해운인력이 양성되며 가능하게 됐다. 해운과 조선이 함께 한다면 향후 30년간 전 세계 1위를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해기사는 세계 최고다. IMO 사무총장



처럼 국제적인 전문인력 등을 배출해야 한다.

해운전문 노하우를 갖춘 원로 해운인을 전문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바다에서 쌓아온 실무를 해운과 조선, 보험, 금융, 해상관리 등에 활용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운은 필수요소다.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있듯이 해운도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의 자위대는 장학금을 많이 주면서 유능한 인재를 유치해왔다. 상위 5%내에 우수 인력을 조선과 해운에 유치해야 한다. 특히 장학의 개념이 바뀌어 수업료 이외에도 생활비나 잡비도 장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해운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정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유치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해운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LNG물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해기사 능력을 인정받아 향후 30년간 해운능력이 평가될 것이다.

### ▶ 창명해운 이경재 사장

선원이 없어 배를 못 사는게 현실이다.

해운 전문인력은 해운업체 뿐만 아니라 금융, 변호사, 보험 등 전 산업분야에 해운과 관련한 인재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운에 대해 좀 더 생각 해주고, 해운 전문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해운업은 IT와 자동차, 철강에 이어 외화수입의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해운산업으로 영입되고 종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해운항만물류 전문대학교의 신설과 전문학과가 늘어나고, 물류전문 사설교육기관이 늘어나면서 전문인력 양성이 양적인 측면에만 치우칠 것이

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 분야에서 해운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

### ▶ 동서대 한철환 교수

기업들이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물류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물류전반의 프로세스 및 수출관련 공급사슬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은 물류분야 교육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물류산업의 글로벌 마인드 부족, 다양한 인센티브 부족, 재직자 위주 양성교육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과 업계는 물류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을 국가 중점사업으로 다루고, 교육부의 인식변화와 해양부의 해운물류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물류관리를 확장하고 세분화한 (가칭)국제 물류관리사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국제 전문인력 양성' 기금을 마련하여 관련 공무원도 해외에서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교수도 연구 및 연수방안을 마련하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 동덕여대 오세영 교수

국내 물류업체는 글로벌 물류비전을 갖고 있다. 교육을 하려면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물류업에 종사하는 서비스 종사자를 육성할 것인지, 제조, 유통관련 관리자를 육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 SCM과정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여 우수인재를 유치해야 한다.